

복음의 제사장 직분

말씀 : 로마서 15:14-16:27

요절 : 로마서 15:16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지난 5개월(2019.11.10-2020.4.19) 동안 로마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복음신앙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를 쓰면서 구원의 교리와 성도들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의 정체성과 사역 방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한 그의 믿음과 자세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여러 성도들의 이름을 세세히 언급하며 안부 인사로써 로마서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신 크신 은혜를 새롭게 하고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믿음과 열정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I. 복음의 제사장 직분(15:14-21)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14,15)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할 수 있는 성숙한 자들임을 인정하여주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이 그들에게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로마 성도들이 성숙한 자들이기 때문에 편지를 쓸 필요가 없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 썼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영적 지식을 다시 생각나게 하여 그 진리를 굳게 붙잡도록 돕고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그들에게 대략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16장에 걸친 방대한 서신을 아주 치밀하고 자세히 로마서를 썼으면서도 겸손하게 대략 썼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16)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영육간의 많은 은혜들을 헤아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크신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 왜 가장 큰 은혜입니까? 바울은 과거 죄의 종이고, 불의의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산다고 뽐내던 자였으나 사실은 어둠과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 불의의 무기 노릇을 하던 자에 불과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우며 겉으로는 의인인 척 큰소리쳤으나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 영적인 소경이 되어 죄의 종노릇 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교만하고 무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내면은 언제나 죄의식과 불안감과 환난과 곤고함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를 당장 심판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영적 세계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를 억누르던 모든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얼마나 율법에 얽매인 인생을 살았습니까? 속으로는 온갖 죄의 소욕에 시달리면서 겉으로는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하며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 주셨습니다. 율법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참 자유함과 기쁨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참 평화와 안식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만 해도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주셨다고 하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인류 구속 역사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에 감격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딤후1:12)

미국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와 함께 일할 각료들을 임명하였습니다. 각료로 임명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뻐했습니다. 힐러리 클링턴은 민주당 대통령 경선했 때는 오바마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자신을 국무장관으로 불러주자 열렬한 오바마의 팬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입니다. 삼권분립(三權分立)을 강조하는 민주주의에서 입법부 수장(首長)인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대통령 밑에 들어가 국무총리를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는데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대통령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인류 역사의 창조와 구속과 종말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택함 받은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으신 왕의 왕, 주의 주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 되게 여겨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우리도 이 말세의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 받은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16b)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사용된 언어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즉 중보자였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다리를 놓아 주었습니다.

이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祭司長)입니다.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안수하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때 사람들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轉嫁-잘못이나 책임 등을 남에게 떠넘겨 덮어씌움) 됩니다. 그런 후에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 때 모락모락 나는 선혈(鮮血)을 제사장이 가져다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물을 번제단(燔祭壇) 위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새까맣게 재가 되도록 태웁니다. 이렇게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때에야 하나님이 그를 받으십니다. 제사장은 이처럼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제사장이 없이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심지어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통로는 될 수 없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웃시아 왕이 강성해지자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제아무리 큰 업적을 남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는 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8:1,2절에 보면 오직 아론의 아들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직분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고기를 태우는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요, 새로운 살길이 되었습니다.(히 10:19,20)

그 사람이 어떤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십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5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제는 아론의 자손이 아닐지라도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는 누구나 복음의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탁월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저는 여행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세계여행을 하였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면 비행기를 탈 기회가 많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될 수 있으면 창가에 자리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지금은 자기가 자리를 선택할 수 있지만 구경하기 위해서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도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시를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큰 논밭이나 초원이 등장합니다. 그 논밭이나 초원에 보면 꼭 강이나 저수지가 있습니다. 어떤 저수지는 작은 저수지도 있지만 어떤 저수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저수지도 있습니다. 저는 그 저수지를 볼 때마다 ‘저게 바로 축복의 통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논밭이 아무리 넓고 초원이 광활해도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비가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저수지에 비가 오면 물을 받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적당한 양의 물을 흘려보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말랐던 논밭에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서 마침내 곡

잘 자라게 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광활한 미국 평야와 이집트의 나일 강 삼각주입니다. 물론 만주 벌판이나 러시아의 대평원도 있지만...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 바로 그 저수지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먼저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 사함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과 성령의 기쁨과 감격과 평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뭄에 바다가 짝짝 갈라진 논밭처럼 갈급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심령에 은혜의 강물 사랑의 강물 기쁨과 평강의 강물 성령의 강물을 막 흘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생기가 돕니다. 그 사람의 잠재력이 살아납니다. 어둠던 내면이 활짝 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 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은혜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 은혜요, 복음의 제사장이 된 것이 은혜입니다. 더구나 바울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너무 너무나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땅 끝까지라도 가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24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부름 받은 일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로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며 거스르며 대적하는 이방인 영혼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하나님께 믿어 순종하게 하여 산 제물로 바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새 이스라엘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9 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 외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2:9) '왕 같은 제사장'(royal priesthood) 왕처럼 빛나고 영광스러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과 한 세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복음 전파는 몇몇 신령한 사람들만 능력 있는 사람들만 감당하는 특수한 사명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복음으로 생명을 구원해야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가정과 캠퍼스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방인 한 사람을 제자로 키우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만한 제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16b)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sanctified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육신적인 자를 성결한 자로 변화시키십니다. 성령께서 능히 이기적인 자를 헌신적인 자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도저히 소망이 없는 사람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능히 게으른 자를 열정적인 자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능히 연약한 자를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용사들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시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된 것을 큰 은혜라고 말합니다. 큰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직분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학생들을 제물로 삼아 주님께 드리는 캠퍼스에 복음의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오늘날 대학생들이 자유분방하게 즐겁게 사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그 내면은 죄로 말미암아 심히 어둡습니다. 불안한 상태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이 받음직한 제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제자로 키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래전 미국 보스턴 어느 보호소에 어머니가 일찍 죽고 알콜 중독자인 아버지가 버린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함께 온 동생까지 죽자 그녀는 거의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괴성(怪聲)을 질러대는 그 소녀를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시다. 더구나 그녀는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였습시다. 그런데 한 나이 많은 간호사 로라(Rora)가 그녀를 도와 보겠다고 자청했습시다. 로라는 다른 것 하지 않고 그냥 그 거친 소녀 옆에 있어 주고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틈나는 대로 책을 읽어 주었습시다. 캔디를 갖다 주며 말을 걸었습시다. 그렇게 하기를 2년을 했을 때 마침내 그 소녀가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습시다. 그 소녀는 마침내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고 시각장애인 학교를 다녀 수석졸업을 하였습시다. 한 독지가의 도움으로 개안수술(開眼手術)도 받고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신문에서 이런 광고를 보았습시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일곱 살 먹은 소녀를 도울 가정교사를 구함”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 아이에게 돌려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가정교사로 자원하였습시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앤 설리반(Anne Sullivan - Johanna Mansfield Sullivan Macy 1866-1936)여사이고 그녀가 도운 소녀는 헬렌 켈러(Helen Keller)입니다.

헬렌은 너무나 망나니라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습시다. 한번은 애니(Anne Sullivan)를 때려서 앞니를 부러뜨리기도 하였습시다. 그런데도 애니는 헬렌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어 줍니다. 노 간호사 로라가 그녀와 함께 있어준 것처럼 그녀도 어린 소녀 곁을 무려 48년 동안 함께 있어 주었습시다. 애니는 헬렌에게 ‘물’이라는 단어를 가르치는데 7년이 걸렸습시다. 애니는 헬렌과 함께 수업에 들어가서 교수님의 강의를 일일이 헬렌의 손바닥에 써 주었습시다. 애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으로 마침내 헬렌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 박사가 되고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는 세계적인 명사(名士)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삼중고(三重苦)의 장애를 극복한 헬렌 켈러를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있기까지 친딸처럼 품고 사랑하고 씩씩하고 들본 앤 설리번 여사 그리고 그 설리번을 있게 한 노 간호사 로라의 헌신에 대해서는 간과(看過)하기 쉽습시다. 그러나 로라와 설리번이야말로 위대한 믿음의 산파(産婆)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잘 주선하여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였던 것입니다.

복음의 제사장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한 양을 제사 삼고 일대일로 돕는 사역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오랫동안 습박꼭질을 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피 말리는 씨름을 해야만 합니다. 양들은 수없이 일대일 시간을 어깁니다. 수양회 가겠다고 말해놓고 당일 날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수없이 도망가고 자기가 아쉬우면 그때에 ‘혜’ 하고 찾아옵니다. 많은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서 밥 사 주고 심방 하고 놀아주고 babysitting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눈먼 강아지와 같은 한 양이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성령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주께서 받으심 직한 영적인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양이 변화되어 목자가 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선교사가 되고 풀타임 목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에베소에서 양들을 도울 때 삼 년 동안 밤낮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을 붙들고 훈계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헌신의 열매로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훌륭한 제자들을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필라델피아(Philadelphia) 템플 대학(Templ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그 학교에서는 헬렌 켈러뿐만 아니라 앤 설리반 여사에게도 함께 박사 학위를 주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삼중고를 극복하고 입지적인 인생을 산 헬렌 켈러도 위대하지만 그런 헬렌 켈러를 48년 동안 품고 사랑하고 감당한 앤 설리반 여사도 그에 못지않은 위대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가 한 양을 감당하기 위해 흘린 눈물과 헌신을 귀히 여기시고 박사 학위보다 더 귀한 천국의 금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를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17-19a)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자랑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넘어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순종시키기 위하여 바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이방인을 믿어 순종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이방인을 순종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말과 행위에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하셔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사 앓은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돌에 맞아도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게 하셨습니다. 감옥에서 옥타가 움직이고 쇠사슬이 벗겨지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말과 행위, 표적과 기사로 성령의 권능으로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고 간증합니다. “그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19b)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개척하고 오늘의 유럽인 마게도냐 지방을 개척하고 그리고 마게도냐 북쪽의 일루리곤(지금의 유고슬라비아)까지 편만하게 개척하였습니다.

## II. 바울의 선교 비전 - 개척정신(15:22-33)

사도 바울의 개척에 대한 열정이 어떠합니까?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귄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램이라”(22-24) 바울은 어느 한 곳에 안주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베소 개척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을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행19:21).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는 로마 관광이 아니라 로마 선교 비전에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그 계획이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바울이 원하는 때에 허락지 않으시고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길이 막힌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던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 위해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자신을 선교사를 파송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로마서 1장을 참고하면 그는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로마를 통하여 세계를 선교하고자 하였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였습니다. 로마에 복음을 전하면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통하여 세계선교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장차 당시 땅 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까지 가고자 하는 비전을 불태웠습니다.(행1:8)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에 들러 로마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들의 파송을 받아 서바나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서바나(오늘날 스페인 지역)는 땅 끝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영적 황무지였습니다. 바울은 당시 땅 끝이라고 여겨지던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개척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려면 다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때 바울의 나이가 어언 50을 넘어섰습니다. 그 나이에 서바나어를 새롭게 공부하고 정복해야 합니다. 새롭게 어린 영혼들과 씨름해야 합니다. 피땀 흘리는 개척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곳에 편하게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개척하고자 하는 바울의 개척정신(開拓精神)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개척이란 미지의 땅에 도전하여 황무지(荒蕪地)를 개간하고 그것을 쓸모 있는 땅으로 바꾸어 씨를 뿌리고 결실을 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지의 땅에 도전하여 황무지를 개간하기 위해서는 가시덤불을 태우고 굳은 땅을 파서 돌을 골라내어야 합니다. 바위가 나오면 다이너마이트로 깨뜨리고 나무 등걸이 나오면 캐내야 합니다. 자갈밭을 갈고 갈아 돌을 골라내고 거름을 주어 부드러운 옥토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곳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매고 결실하기까지 인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땀과 인내와 눈물이 요구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날마다 안일에 대한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적 외적 원수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척자들에게는 fighting spirit이 있고 승리의 기쁨이 있고 생명과 행복이 있습니다. 역사를 창조하고 열매를 맺는 가슴 설레게 하는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원수는 무사 안일주의입니다. 이 시대는 안일주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캠퍼스 역사를 창조하려면 안일한 정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장애물과 원수에 도전하여 싸워야 합니다. 말쑥의 썸을 파고 기도예 힘써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주께 드려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개척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타는 개척정신을 허락하사 봄 학기에 새롭게 개척 역사를 이루고 2041년까지 세계 233개국 8,000 캠퍼스를 개척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올해 2개 요회를 새로 개척하여 8개 요회 체제로 정비하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개척정신에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척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적인 안일과 불신과 싸워야 하며 또한 외적인 여러 장애물들과도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불굴의 개척정신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길 기도합니다.

나아가야 할 서바나는 어디입니까! 233개국 온 세계 캠퍼스가 우리의 서바나입니다. 어떤 이들은 북한의 김일성대학을 지목( ) 합니다. 어떤 이들은 중앙아시아와 중동지역의 이슬람을 지목합니다. 우리 모임이 끊임없이 개척자들을 파송하는 모임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세계는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2030년에는 뉴욕과 한국이 일일 생활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통신혁명으로 몇 번만 클릭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일대일 대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는 땅 끝 서바나처럼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과 스승이 말이 통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가 대화의 단절을 겪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관계성을 맺고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땅 끝까지 가는 머나먼 여정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던 바울의 열정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 III. 문안 인사와 찬양 - 보배로운 복음의 동역자들(16:1-27)

“내가 겐그레아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뵈뵈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1,2)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뵈뵈 자매입니다. 16장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사람이 총 33명입니다. 그중에서 로마교회 성도가 24명이고 고린도교회 성도가 9명입니다. 그리고 그 33명 중에 여자들이 9명입니다. 그런데 편지에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인물이 여자입니다. 뵈뵈 자매와 브리스가입니다. 당시 사회는 여인들을 무시하고 비인격적으로 대우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여자도 사람인가’ 라는 주제로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논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대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뵈뵈 자매를 무시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뵈뵈 자매님을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 교회에 꼭 있어야 하는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뵈뵈는 자매님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감당하였습니다. 뵈뵈는 겐그레아 교회에 보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뵈뵈를 추천하면서 ‘교회의 일꾼’ ‘우리 자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겐그레아 교회에서 무슨 일 때문인지 머리를 깎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바울에게 뭔가 큰 어려움이 있었거나 어떤 중대한 결단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 뵈뵈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뵈뵈 자매는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2)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로마서도 뵈뵈 자매의 손에 들려서 로마교회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뵈뵈 자매를 자신 있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를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그에게 소용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3,4)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본래 로마에 이민 가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AD 50년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오(Claudius)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이 황제숭배를 잘 안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린도로 내려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에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는데 아굴라의 직업도 텐트 메이커라 함께 만나서 같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들은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는 고린도교회의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에베소로 옮기자 그들도 에베소로 옮겨서 복음역사를 섬겼습니다. 지금은 로마로 들어가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로마 개척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소개할 때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충성하는 부부’ 라고 하였습니다.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충성했다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충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가정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여섯 번이나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항상 브리스가가 먼저 나옵니다. 이를 볼 때에 브리스가 사모님이 아굴라 목사님보다 더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보면 생각과 가치관이 같아집니다. 아마 이 부부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순수함과 열정이 하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5a절에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들은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성도들을 섬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였기에 가정조차도 오픈하여서 양떼들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이 가정만큼은 자신들만의 보금자리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누구의 간섭이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소도손 아기자기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을 성도들에게 오픈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성도들을 자신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가족으로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의 가정을 오픈하여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주와 복음역사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놓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목이라도 내놓고자 하는 자세로 하는데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은 참 복 받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옆에서 비서처럼 도와주는 뱀피 자매님이 있죠, 목숨이라도 내놓을 각오로 섬겨주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주위에는 왜 이런 동역자가 없는가? 나도 누군가 주위에서 섬겨주고 키워주고 헌신적으로 도와주면 나도 큰 인물이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은 바울이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스승에 그 제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들이 결국은 목자를 다 보고 그 대로 배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소개한 인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된 것을 보면 특정한 법칙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이가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 쓴 것이 아닌가?’ 라고 말했는데 그의 말이 정당일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男女老少) 빈부귀천(貧富貴賤)의 순서대로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니다. 여인들에게 안부를 물었다가 노예들에게 물었다가 귀족들에게 물었다가 다시 노예들에게 물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남자와 여자, 귀족과 노예의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왕족이나 귀족에게 문안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이런 상류층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렇게 소개하면 좋은 선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여자들 그리고 노예들 순으로 문안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인간적인 것을 따지지 않고 자유롭게 문안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소중하고 누구든지 사랑스러운 동역자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소개된 사람들은 노예이든지 귀족이든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주 안에서 별

빛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11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밖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앓았습니다. 그는 오직 유대인들만 빛나는 사람으로 알았고 이방인들은 기생충 같은 인간들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영접하시고 사도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도 사랑하고 로마인도 사랑하고 땅 끝 서바나 사람들도 사랑하였습니다. 귀족도 소중하고 노예도 소중하고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소중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에 기록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바울의 가슴속에서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택하신 자들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동역자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끝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에 힘썼습니다. 그것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예언된 것이었는데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견고하게 서게 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신비(神祕)의 계시(啓示)를 드러내셔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성도들을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로마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결론적으로 우리는 바울과 동일하게 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전파의 열정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2020년에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런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회복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충성스럽게 감당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함께 부름을 받아 캠퍼스 개척과 세계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동역자 한 분 한 분을 주 안에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